

참고자료. 온실가스저감사업 해외진출 본격 지원

- 2011년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접수 -

□ 에너지관리공단(이사장 李泰鎔)은 금년부터 「기후변화대응 한-개도국 협력사업」의 일환으로, 온실가스저감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*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: 기후변화협약(UNFCCC)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며,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(Clean Development Mechanism)에서 제시한 15개 분야중 조림 및 재조림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임.

○ 「기후변화대응 한-개도국 협력사업」은 2008년도부터 국내 에너지·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,

○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원, 권역별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개도국 온실가스저감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업의 개도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다.

□ 금번 지원사업은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기술, 금융, 법률 등 제반 조건들의 전문적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초기 개발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으로,

○ 사업의 총 지원금은 18.5억원이며, 사업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기업(총 사업비의 50%) 또는 중소기업 및 기타기관(총 사업비의 75%)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사업 수행기간은 최대 6개월으로, 5.13(금)까지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, 동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에 공고되어 있다.

□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“그 동안 한-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해 축적된 해외 인적네트워크와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